

# “소 키우는 사람이 소 잃은 마음 알죠”

## 보성 축산농가, 소먹이 220t 모아 구례에 전달

곤포 사일리지 4.5t 트럭 17대  
소 100마리가 6개월 먹을 분량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소 키우는 사람이 소를 잃은 축산농가의 아픔을 잘 알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구례읍 양정마을. 공룡알같이 생긴 ‘곤포 사일리지’(수분량이 많은 목초·야초·사료작물 등을 진공으로 저장 및 발효하는 것)를 실은 4.5t 트럭이 줄지어 축산농가를 향했다. 보성 축산농가들이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구례 축산농가들에게 소먹이를 전달하는

행렬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44개 축산농가가 한우 1527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일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농장이 물에 잠겨 461마리가 죽고, 99마리는 유실됐다. 수해 속에서 살아남은 한우는 924마리였다. 10마리 중 4마리가 죽거나 폭우에 휩쓸려 떠나려간 것이다. 이 마을 축산농가들은 살아남은 924마리를 기르는 것도 막막했다. 수해로 소먹이가 없어서다. 이 소식을 들은 보성 축산농가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들의 먹이를 임시일방 내놓았다. 그렇게 모인 곤포 사일리지가 370개, 220t에 달했다. 이는 식가로 2600만원 상당이며, 소 100마리

가 6개월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정병준 보성군조사료경제협의회 회장은 “폭우로 가축이 죽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가축들도 조사료가 물에 잠겨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같은 농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회원들과 사료 모으기 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사료 모으기 운동은 지난 18일부터 드라이브 루 방식으로 진행, 사흘만에 220t을 모은 것이다. 조사료 운송은 보성지역 운송업체와 중장비 업체들이 맡았다. 운송비용은 이들 운송업체들이 전액 부담했다. 이날 보성에서 온 곤포 사일리지 차량 행렬을 지켜보던 구례 축산농가들은 고마움에 눈물을 삼켰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 축산농가들이 임시일방 모은 곤포 사일리지 220t이 구례 축산농가에 전달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구례군, 수해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집중호우 피해액 1807억원  
주민세 납부 유예  
침수차량·건축물 세 감면 추진

구례지역 집중호우 피해액이 1807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구례군이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해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주민세 납부를 유예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24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8~9일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이 물에 잠겼던 구례지역 피해액이 180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일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사유시설 1153억원, 공공시설 654억원이다. 구례군은 침수와 시설물 파손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3일

오전까지로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이재민 1149명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972명이 복구하고 177명이 대피소 3곳에 분산 수용 중이다. 공공과 민간 건축물 1615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농경지 699ha(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ha)가 잠기고 가축 2만1162마리(돼지 1900마리·소 556마리·오리 1만6757마리, 기타 1949마리)도 피해를 봤다. 도로 일부가 붕괴한 국도 17호선 서시1교 등 도로 9곳도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구례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 수해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된다. 구례군은 또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 유예 결정을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8월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납부기한을 11월 30일까지 유예했다.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된다. 구례군은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침수피해를 본 건축물은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구례군은 이와 함께 침수지역 이재민의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담 14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수해복구 지원 장비, 자원봉사자, 이재민 등 1049명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주시 웹드라마 ‘호접몽’, 서울웹페스트 대상

탄탄한 시나리오·영상미 돋보여

여주시가 자체 제작한 다섯번째 웹드라마 ‘호접몽’이 국제 웹 영화제에서 베스트 드라마상을 수상했다. 24일 여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SNS 언택트 라이브 형식으로 열린 제6회 2020 서울웹페스트 시상식에서 ‘호접몽’이 종합대상적인 베스트 드라마상을 받았다. 올해는 25개국에서 190편이 출품돼 31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주시는 이번 웹페스트의 베스트 드라마 부문을 놓고 서울시 ‘공평의 연인’과 국가인권위원회 ‘비밀의 비밀’ 등 경쟁작 후보작 20편과 경합했다. 서울웹페스트 관계자는 “‘호접몽’의 탄탄한 시나리오와 아름다운 영상미가 단연 돋보였다”며 “특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15년부터 매년 자체 제작의 노후를 쌓아온 여주시의 노력이 눈부신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웹드라마를 제작한 김상욱 여주시관광팀장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여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힘써왔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작품으로 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의 내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가 2500만~3000만원의 저예산을 들여 제작한 웹드라마는 ‘신지기의 사랑이야기’(2015), ‘여명’(2016), ‘마녀복’(2017), ‘동백’(2018), ‘호접몽’(2019) 총 5편으로 모두 국제 웹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여순사건을 기반으로 한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 황금늑대상을 수상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고흥에 자연친화 추모공원 만든다

13명 추진위 구성

고흥군이 군립으로 자연친화적 추모공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춰 공원 기능을 강조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고흥군 추모공원 설치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고흥군립 추모공원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당면적 공무원 3명, 군의원 1명, 장사 전문가 3명, 지역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청 발영산실에서 추진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고흥군민이 만족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추모공원의 건립 규모, 건립부지 공개모집 선정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 인센티브 등



고흥군이 지난 21일 군청 발영산실에서 ‘고흥군립 추모공원 설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했다. <고흥군 제공>

을 심의하고 추모공원이 건립되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은 공모제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장장을 제외한 잔디·수목장 등 자연친화적 공간·봉안당·봉안담 등 봉안 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사시시설로 조성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세열굴

## “협력치안으로 시민에 사랑받는 경찰될 것”

조영일 순천경찰서장



그는 또 “경찰의 최대 고객은 주민”이라며 “목적의식을 갖고 정성을 다해 뛰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신임 서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문, 진도서장과 전남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주민과 함께 하는 협력치안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순천경찰이 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조영일(50) 순천경찰서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늘려 주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순천시민이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